東大新聞
發行人 金東益 編輯人 李孝宋 主幹 李昌燮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9 本社直通 ㉒8498
發行 每週木曜日

今週一言

惡德을 따르지 말고 방종하지 말라. 그릇된 世俗과 야합하지 말라.

<法句經>

學生會長團選擧 19日

立候補등록 14日마감

選管委長에 李亨九君선출

<이형구 선거관리위원장>

〈李亨九選管委長〉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6일 일부 보자들의 불상사로 일단 중지되었던 69학년도 총학생회장단선거 사무를 5일부터 再開, 19일 총선거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代議員會는 同學務長 李亨九군(物·4)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선출, 새로 임명하고, 學生處에선 신임위원장으로부터 삼신된 선거일정및 기타 규정을 승인했다.

선거사무가 다시 시작됨에따라 총학생회장및각단내 학생회장, 학회장, 그리고대의원 입후보자는 자동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각급 회장입후보자는 다시 등록을해야한다. (但 선거결과 당선이 확정된 입원은 계속인정함)

한편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했던 5명가운데 崔永保군과 李辰雨(農經·3)군이 이미 脫落됨으로서 이번 선거에선 실상 3着 경합을 예상케했었는데 金洞煥(行政·3), 李運永(農·3) 梁鎬培(政外·3)군등 李군은 『立候補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선거사무가 원점으로 환원됨에따라 총학생회장에 입후보할 학생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앞서 選管委長 李군은 입후보자는한편 공명하고 명랑한 선거를 치루기 위해 다짐했다고 다짐했다.

〈選擧日程〉

▲회장단 입후보자 등록일시 (14일 9시~12시)
▲학회장및 대의원 등록기간 (11일~14일)
▲회장단 선거및 순위추첨일시 (14일12시이후)
▲회장단 소견발표일시 (16일9시~12시)
▲투표및 개표일시 (19일9시~18시, 19시이후)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16일~17일)

孫會長奬學金 鮮于양에支給

東女會 孫興周會長은 東女會奬學金 募金과는 별도로 그의 私財를 털어 鮮于明子(史·4) 양에게 장학금을 지급키로 했다.

東女會奬學生운영에 관한 敎育을 담당하고, 學生處에선 佛敎 格陶治를 위해 敎養學部에 서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는 月曜講座로 변경, 지난 9일 중강당에서 첫講座를 가졌다.

강좌는 6백여명의 학생이 수강중이며 이번 강좌는 2시간에 걸쳐 대학생들의 生活을신사는 「프랑스」와 생생묘사로 돌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비판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진다.

이 회의에서는 금년도사업의 경과보고, 현재 경제학연구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실문제, 蔡廷煥(農·3)군등 선배들의 후배지도에 관한 문제등이 토의될 것이라한다.

한편 교양학부에서는 앞으로 계속月曜講座에 저명한 外部人士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자질향상에 힘쓰리라한다.

月曜講座개최 敎養學部서

新入生들의 質的向上과 人格陶治를 위해 敎養學部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月曜講座로 변경, 지난 9일 중강당에서 첫講座를 가졌다.

강좌는 6백여명의 학생이 수강중이며 이번 강좌는 2시간에 걸쳐 대학생들의 生活을신사는 「프랑스」와 생생묘사로 돌면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비판하면서 학생들에게 가진다.

이 회의에서는 금년도사업의 경과보고, 현재 경제학연구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연구실문제, 蔡廷煥(農·3)군등 선배들의 후배지도에 관한 문제등이 토의될 것이라한다.

한편 교양학부에서는 앞으로 계속月曜講座에 저명한 外部人士를 초빙하여 학생들의 자질향상에 힘쓰리라한다.

旱害地區 學友돕기 「길」클럽募金운동 벌여

학원마화에 있는 길클럽에서는 지난4일부터 6일2일까지 旱害地區學友돕기 모금운동을 벌였다.

금액은 계속치못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확보 했다.

旱害地區 學生會 登錄金 一部補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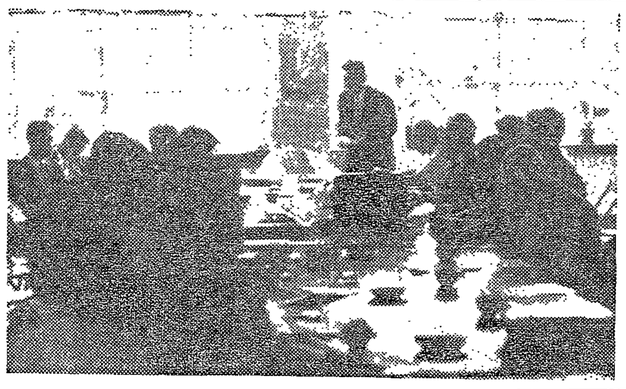
20일까지 書類제출토록

學生處長 李鎭鎬학생처장은 10일총학생회장단선거에관한 단선거에관한 담화문을 발표하는 한편 학생들의 요망하는 학생처당국에 대한 계획을발표하였다.

李학생처장은 ①講義進度表를 제출한 교수에 한하여 ②休講근절, ③講義內容충실등을 위하여 敎授들의 協助를부탁했다. 그리고 學生들의 語學實力向上을 위하여 放學中(7·8월)에 學生들의 理解能力을 증진하고 試驗을 하여 學生들의 理解能力을 테스트하도록 하자고 시행 하였다. 또한 學生出席의 엄격 한 체크, 生活指導등은 大學生의 姿勢確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불교계 승려도 국군 정신교육의 일익을 담당케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泰國·월남에이어 세번째의 軍僧장교보유국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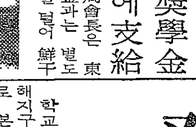
〈敎養學部교수회의를하고있다.〉



學生生活指針 발표

明朗한 選擧風土당부

〈金潤煥단장〉



團長에 金潤煥대령

5일離就任式가져

市內 各大學 R·O·T·C團長, 본교교무보좌 전원이 참석했다.

離就任式은 개식사, 지휘권이양, 이임사, 취임사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이자리에서 본교 金總長은 前任團長의 業績을 찬양하고 新任 金團長을 진심으로 歡迎하다고 말했다.

◇신임단장약력◇
R·O·T·C단장歷 金潤煥대령
▲一九四八年 士官(陸士八期) ▲一九六四年 一軍副사령부 ▲一九六五年 一軍사령부 ▲一九六六年 八군단 十연대장 ▲一九六七年 인사참모부 계획처장 ▲一九六八年 본교학훈단장

學生處에 學風確立班 설치

學生指導·生活相談 등 담당

學生處에서는 學生指導·生活相談·學風確立·學生福祉·學生團體指導·學生處業務·學生處內部業務·學生處庶務·學生處會計·學生處文書·學生處施設·學生處營繕·學生處營舍·學生處營舍管理·學生處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繕·學生處營舍庶務·學生處營舍會計·學生處營舍文書·學生處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管理·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繕·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庶務·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會計·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文書·學生處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營舍施設·學生處營舍

(第399號) 1955年10月13日 第3種郵便物認可

社說

다시 學生會 選擧를 앞두고

지난 6月18日에 實施할 예정이었던 1959學年度 學生會長團選擧이를 앞두고 無期延期되고 말았던 것이다。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사정을 역력히 기억하고 있다。선거에 過熱한 一部 學生들이 選擧法을 違反한 結果, 結局은 退校處分을 當한 學生도 있었고, 立候補資格을 喪失한 學生도 생기고, 나아가선 選擧를 適期에 실시할수 없는 지경에 까지 事態를 몰고갔던 것이다。한두 사람의 過知慮한 행동이 그 社會에 끼치는 影響이 과연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例가 될수 있었다。그 不祥事가 있은지 3개월, 이제 출범한 反省期를 격고 운 마을을 가다듬어 다시 선거에 臨하게 되었다。學生處당국의 발표에의하면 總會長을 비롯 各學科 大學會長團 선거를 오는 9月19日에 實施할 것이라하니, 選擧를 불과 1週日 앞둔 이 時點에서 우리는 다시한번 學生會選擧의 意義와 그에 임할 學生들의 姿勢를 反省하지 않을수 없다。

大學에 學生들의 自治機構를 둔 목적은 大學이 學問硏究의 嚴高殿堂으로서 學生들의 知的陶冶만을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民主社會에 適應할수있는 市民生活의 訓練을 목적으로 校內에서의 學生活動의 重要性을 인정하고, 그 學生活動을學生들이 自律的으로 立案·遂行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學生活動을 效率的으로 管掌하기 위하여 學生들이 學生會라는 組織體를 갖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인즉, 會長團에 立候補하는 사람이나, 選擧權을 保有하는 學生들은 모름지기 學生會存立의 根本趣旨를 망각함이 없어야 할것이다。

그러므로 學生會長團에 立候補하고자하는 사람은 校內 諸般 學生活動에 있어 그 원활한 움직임을 위한 충실한 奉仕者가 되는 등이에 최후의 책임을 감수할만한 民主的 良心的精神에 투철해야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學生會라는 조직을 獨裁體制下의 機構造로 착각하여 學生들을 支配하고 통치한다는 식의 착각에 빠져서도 안되고, 學生會가 학교의 運營機關인 양 착각하여 학교의 行政執行에 關與하고자 해도 안될 것이다。

이와같이 學生會는 어디까지나 學生會로서의 한계와 그 獨自的 사명이 있는 만치, 그 限界逸脫과 使命感에 투철한 사람이 바로 그 학부에 被選되어야 할것이다。그리고 선거로 말미암아 그것이 校內에서 學生들로써 그리고 學校教育의 一部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치, 그 校組織이 어디까지나 一級成人社會의 그것과 판이해야 한다。

立候補하는 學生이 앞서 이로 기까지의 과정에서 勝利만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民主主義가 그런 點으로 하는 점은 그것이 목적보다는 방법을 第一主義로 삼는 점이다。民主市民의 指導者가 되고자 하는 學生들이니만치 그 訓練過程에 있는 學園에서 부터 民主主義의 長點을 體得하고, 그것을 실천해야한다。그리하여 그들이 장차 社會에 進出하였을 때엔 자신이 民主主義의 모범적 實踐家가 될 뿐만아니라, 그 指導者로서 一切의 非民主的 要素를 除去하는데 先鋒的 역할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韓國의 學生은 不正選擧를 규탄하고 正義에 抗拒한 4·19라는 빛나는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그傳統을 더욱 빛내고, 자랑스러운 선배들을 욱되게 하지않기 위해서도 學園內의 선거는 公明하고 모범적이어야한다。갈홍 들리는 말과 같이, 學生들의 선거가 成人社會의 그것과 같이 君子之道로 생각되고, 또 시비비어 물러설지 모르는 오즈음 世態에서는 드물고 不條理가 만연하는 현실에서 이것은 비단 그 學園을 위하여 한심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國家와 民族의 장래를 위하여 통탄할만한 일이라 하지않을수 없다。

國家와 民族이 惡에 직탈하고, 不義에 시달릴 때에, 용감히 正義의 불길을 높이 쳐들고, 民族의 갈바를 옮게 웨쳐줄 수 있는 최후의 양심이 大學生에게 있거늘, 그 높은 긍지를 自己自身이 스스로 不正과 不義에 뛰어든다면, 또 正義와 양심은 찾을 길이 없을 것이니 말이다。

특히 이번에실시하는 선거는 그어느때의 선거보다도 學生들의 自覺을 促求하는 계기가 될것이다。그러나 大學에 갓 들어온 新入生은 이제까지의 환경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大學社會에서 어리둥절하다가 탈선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敎養學部당국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고 치밀한계획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정과 사회에 공평하는 정신적 지도원리가 없다。그래서 金玉講恩想과 주단과 방탕은 않는 出世主義 풍조가 도처에 만연되어 있다。

大學은 결코 이런 사상, 풍속과 양립할수 없다。나가서 이러한 世態를 바로 잡는데 현신해야한다。

그러나 대학은 직업인이 되기위한 전문과정을 이수 하기에도 시간이부족한 형편이다。여기에서 우리는 敎養學部와는 다른 特殊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人間문제이다。아무리 「컬리큐럼」 敎材등이 편성을 잘되었다해도 人間이 무엇인줄 알고 자기자신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줄 알았을때 비로소 우리의 학업이 참된 의의를 가지고 학문의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가 확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결코 敎養學部의 강의실의 문은 일찍 닫는데 있지 않다。敎養學部의 강의는 특히 名講師라야 한다。아무리 먹어도 절리지않는 부로의 밥은 과일처럼 기다려지는 원숙한 강의를 들을 때 大學生으로서의 공기도생기고 愛校心도 우러 나올수 있다。

강의가 공동한교때만 못하더라는 평이나돈다면 그 강의실의 문은 일찍 닫는게 옳다。

그 다음에는 에누가다 남았으니까 곧 재배에관한 연구를 계속하여 그것에 適用해온 硏究領域에 있어서 硏究의 成果를 사회적상의 효율적 硏究領域에 도입한 것은 불과 몇해전의 일이다。

그기초를 두고 親念的 思辨的 세계관을 지닌 社會科學領域에도 數學的 理論을 도입, 모든 사회현상을 해은 統計學의 發展狀과 그 動向 그 全貌를 알기쉽게 槪括하기란 바랄수도 없는 일이다。본 統計學의 특징은 統計學徒들을 에게 統計學의 현실과 槪念을 이해시키고 統計學의 기초로 하는 대수의 법칙이 선명히 기술되어 있음은 물론 統計學에 이용하느냐 않느냐가 문제가아니라, 統計學을 모일하여 現代統計學으로의 一步를 내디디게 한데 의의가 있다。또한 그당시어려분래로나처진정을 발견하고 확실성, 연구하여 合法則性을 究明하는 것으로하고, 연구대상을 社會集團에, 연구방법을 大量觀察法으로 하였다。이렇게하여 근대적

異常氣流속의 學生自治

그저 그런 一年

총학생회 1년간의 발자취를 각 부별로 나눠보기로 하자.

학예부=「東國」誌(제5호)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겨울방학 전까지 나왔어야 할 「東國」誌가 난항을 겪고 투차례의 편집회의를 보강 끝에 5月末 납품, 학생들에게 배부되었다.

그밖에 연극공연이 2회.

체육부=축전행사로 벌려진 교내체육대회를 제외한다면 別無한 상태.

법률부=7차례에 걸친 웅변대회와 KBS등 대학방송토론테스트 2회참가.

선도부=교풍확립주간봄철과 가을 2회설정, 실효성 없는 형식적 시위에서 그치고 말았던것.

농어촌연구부=冬·夏期 방학을 이용한 봉사활동을 들 수 있으나 학구적 인 자세를 잃은 결함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대로 창립12주년기념 대강연회및 4H경진대회 참가들은 기록할만한 것.

서부부=대통령기 쟁탈 태권도대회 전국 신인선수권대회에 참가, 합숙훈련등.

여학생회=일선장병 위문, 시내 각대학 여학생회장단 간담회개최. 여학생 수양강좌 등이 있었다.

동국문화연=울세워 실시된 이행사는 68학년도 총학생회 장단 취임이래 맨처음맞 이상없이 성황리에 끝났다.

특별예산=67년11월13일부터 6일간 시화전, 심포지움, 합평회, 문학의밤등 임채정 교수등 연등행열, 모의국회등 총22가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창의성과면에 있어서는 별반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는 평을 받지않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고질적 風土, 改善意慾도 없어

한일도 없고, 일할 意慾도 없어

내용은 연등행열, 모의국회등 총22가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창의성과면에 있어서는 별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동국문화연=울세워 실시된 이행사는 68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취임이래 맨처음맞아 67년11월13일부터 6일간 시화전, 심포지움, 합평회, 문학의밤등 임채정 교수등 연등행열, 모의국회등 총22가지에 다다르고 있으나, 창의성과면에 있어서는 별반 찾아볼 수 없는 형편이었다.

특별예산=67년11월13일부터 6일간 시화전, 심포지움, 합평회, 문학의밤등 임채정 교수등

文學은 想像속에 捨象된 全體性의 視角이어야 한다

『韓國知識人의 現實參與』를 이룩하기 위하여 現時代의 문학에 대한 판단이 同時代人의 공통된 견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바로 오늘날 이라는것 사이에는 GENESIS의 제목일과 차이가있다。 그러나 비평가는 그 작품의 그러한 측면을 파악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측면을 그 특수로 한 전체로 통일하여 주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비평은 문학이 고립할수 없고 작가의 주관에서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비평은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평가는 그 작품을 그 특수로 한 전체로 통일하여 주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야 한다。 비평은 문학이 고립할수 없고 작가의 주관에서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비평은 문학이 고립할수 없고 작가의 주관에서만 살아남을 수는 없다。

徐 重 喆

戰後批評의 몇가지 任務

생명이 있는 인간이라면 그 육체는 바탈앞에서 움츠려든다。 비록 그것이 황야의 눈을 녹이는 훈풍이든, 또는 세기의 終樂宣을 고하는 북풍이든 인간의 살결은 의당 반응하게 마련이다。

제일차 세계대전이 끝난지 2년째 되는 1920년 「발레리」는 『해변의 墓地』를 발표함으로써 영어불은 순수의 결정체로부터 詩의 기능을 이탈시키는 시도했다。 이론바 「물트라·리고리즘」이 거기에는 있었다。 『바람이 인다!…살아보아야겠다! 거창한 大氣가 내 책을 펴다 다시 덮는다。

산산이 부숴진 나물이 바위에서 갈히 뽑어오른다。』(「발레리」…『해변의 墓地』)

이것은 곧 生命의 受容에로 발해주는 것이며, 사색이 좌절된 극한상황에서는 行動이 유일한 수단으로 정당화됨을 시사했다。 그리고 행동은 육체의 문제에 국한됨을 넘어시비

치기까지 한다。 『詩는知性의 祝祭이어야하며 그 言語상的인 표는 年代的인 이외의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발레리』 그러나 비평가는 그 작품의 제일차적인 의미와 또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원리를 이용하면서 수 있다。

위대한 비평가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을 알아버렸다。 실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실을 알아버렸다。

또 우리는 결국 비평은 「에디푸스」의 「프로메테」의, 「씨지프」의, 같은 말이다。 으로 나타난다。 오해하지 말라。 비평이 어떤 권위적 결정적인 영향이래 소수의 작가와 작품을 골라서 그것만이 문학적 척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문학의 傳統에서 제거해 버리자는 주장은 아니다。 종은 비평은 『별은 책』보다도 많은 책을 펴준다면 말이다。 문학비평가도 코리의 배와 이빨과 꼬리와 다리를 붙잡고 있는 하나의 盲人에지나 않는다면말이다。 비평은 과거의거대하고덮혀진 문학의 遺産속에서 부드러게 직접적으로 그래 박력있게 현대를 향해 말해주는 것을 골라내고, 내세울수 있는말이다。 이것이 비평가와문학사가나 언어학자와의차이다。 後者의경우 原典이가치는 본질적인 것이 原典은 大局的인 문학의 유일한 수단∨으로 교만자가 있으면 佛道에 정착할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주장한 결손의 德은 인간에게 양보하고자하는 마음은 禮의근본이다』라고 孟子도 말하였던 것이다。 결손은 인류의 德行과 신앙에 대하여서 감히 범할수 없는 聖哲을 모욕하는 자기의 德이 세우고 타인을 毁辱하는 것이다。 이것은 官僚의 상관이나 회사의 사장에게 잘보여 進級과 榮轉이나 한두 번이 아니다。 결손은 無에 경착하지않으며 또 오만하지 않으며 다반결손한 인생을 營爲하는 것이다。 결손은 信仰, 學問 그리고 자기 성에 기초가 되는것이며 결손은 인간의 충실과 근원이 있어서 교만함을 없고 자기의 德에 대하여서 갑작했던 마음의 자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주장한 결손의 德은 그것을 증오하였던 「弱者의 德」이었으나 결손은 本質的으로 틀린다는 것이다。 결손은 明하였던 것이다。 결손은 인류의 聖哲을 모든 자기의 德行과 신앙